

현대 한국불교를 빛낸 115명을 만나다

활안 스님 본지 연재를 엮어 펴내



내가 만난 선지식
활안 한정섭 지음
불교통신교육원 펴냄
1만 5000원

“선지식은 나의 스승이요, 눈이요, 나무요, 지혜이다.” (화언경) 말씀이다. 경전에서 선지식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선지식을 의지하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가며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무지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활안 스님이 본지에 연재했던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을 정리한 저서 《내가 만난 선지식》을 펴냈다.

저자는 조계종전국신도회 법사1호로 활동해 온 포교전문가로 불교계에서는 한정섭 법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생활의 불교화·세계의 불국토’라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저자는 교육·복지·해외활동 등 다양한 포교활동을 펼쳐 왔다.

저자가 만난 선지식들은 다양하다. 국내외 스님뿐만 아니라 원력이 높았던 재가자도 포함돼 있다.

▷송광사 주강 스님 ▷쌍계사 효봉 스님 ▷오대산 탄허 스님 ▷상원사 희섭 스님 ▷금오산호랑이 금오 스님▷前 동국대 이사장 기산 스님 ▷前 동국대 총장 백성욱 박사 ▷참사암의 주인옹 서옹 스님 ▷법륜사 대륜 스님 ▷원효종 종정 범흥 스님 ▷용화사 율사 목담 스님 ▷송산 스님의 법은사 고훈 스님 ▷칠보사 석주 스님 ▷신통도인 탄공

스님 ▷뇌허 김동화 박사 ▷전태종 상월 조사 ▷일봉 서경보 스님 ▷불일종 종정 흥선 스님 ▷통도사 조실 경봉 스님 ▷인도불교의 개척자 암베르카르 ▷티베트 달라이 라마 ▷중국 거사불교의 대표자 조박초 선생 ▷미얀마 밍군 스님 ▷캄보디아 텡봉 스님 등. (이상 책의 115명 가운데 발췌)

책은 저자가 직접 만난 선지식을 회고하는 것에 문헌과 구전으로 전하던 선지식들의 면모를 글로 풀어낸 것이다. 저자가 직접 만났거나 글·말로 대신 만났거나를 따지지 않고 저자는 선지식들과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옛이야기 전하듯 구수하게 전달한다.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한 쪽의 그림들처럼.

저자는 “불교에 들어온 지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분도 있고, 또 기억이 잘되지 않는 분도 있다. 대강 찾아 글을 쓰다보니 그분들의 인격에 손상이나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한 달에 네 번씩 1년 56회 정도도 끝내려고 했던 글이다”라며 “여기저기서 ‘왜 우리 스님은 안나오냐’는 통에 2년 가까이 연재하게 됐다. 그러다보니 2년에 가깝게 연재하며 100분이 넘는 분들에 관해 쓰게 됐다”고 말한다.

저자 활안 스님은 1965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저자는 포교활동을 하던 중 불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교를 공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다수의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저자가 설립한 교육기관은 서울 청량리동 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불교통신대학, 나란다심장불학원(강원교육), 불교예술대학 등이다.

저자는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하루 40여 회의 강의를 소



회해 내며 불교교육의 생활화·다양화에 진력했다. 국내 포교뿐 아니라 저자는 태국·몽골 등 해외포교에도 힘썼다. 저자의 포교를 향한 원력은 책의 출간 이유에서도 오롯이 증명된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에서 “현대불교신문의 요청으로 망설이다가 50년 동안 내가 만났던 선지식들을 연재기로 해 2년 동안 신문을 매워왔다”며 “삼각산 문수원 천일기도의 회향일에 맞춰 동참불자들에게 무엇으로 회향할까 고민하다 책으로 엮어 펴내게 됐다”고 적었다. **조동섭 기자**

생산도 소비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윤성식 고려대 교수 연기자본주의 제안



불교자본주의
윤성식 지음
고려대학교 출판부 펴냄
1만 6000원

현대 시장자본주의의 심각한 문제는 인간을 존중하는 윤리의 실종이다. 재벌기업들은 시장과 정부의 우선순위를 교란시키고 막대한 자본으로 언론보도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심지어 정치권력마저 사들이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저서 《불교자본주의》에서 시장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불교자본주의를 제안한다.

열릴 보기에도 불교와 자본주의는 병립되기 어려운 단어들이다. 무소유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불교와 무한경쟁·이윤 극대화를 기치로 하는 자본주의를 한 단어로 묶는

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발상에 가까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시장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은 불교자본주의이며, 이는 곧 연기자본주의이다”라고 말한다.

불교자본주의는 물질적 부의 추구가 더불어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물질적인 부를 추구할 때에도 조건이 따른다. 특히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는 안된다. 또한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부추겨서도 안된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불교자본주의 하에서의 생산행위는 자리아타를 실천하는 행위여야한다”고 강조한다. 즉, 기업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기본 정신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저자는 생산자인 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불교적 가르침을 따를 것을 제안한다. 분수에 맞는 중도적 소비행위와 기능적합적 소비행위를 하자는 등 소비의 중도적 도덕률을 따르자는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분수에 맞는 소비는 자기를 남과 차별화하고 과시하려는 소비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능적합적 소비행위는 아무리 부자라도, 그래서 분수에 맞다고 해도 기능 이상의 물건을 소비하지 않는 것을 말

한다.

저자는 “예를 들어 수천억을 보유한 재력가라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핸드폰을 구입하는 것은 기능적합적 소비행위에 어긋나는 사치이다”라고 설명한다.

불교자본주의의 경제관계는 동등한 협력관계를 지향한다. 모든 거래는 남에게 이익을 취하면 동등하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협력관계란 경쟁업체의 존재 인정과 시장에서의 공존을 의미한다”며 그 중점은 소비자의 올바른 소비 선택을 돕기 위한 공존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기업은 자비의 경제를 실천해야 하고, 자리아타적 소비절제와 근면을 통해 축적된 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환원해야 한다. 이것이 초과이익의 사회적 공유이며 정의 실현이다”라고 설명한다.

강자독식의 세계에서 공존의 무아적 세계로 가치전환을 요구하는 저자의 제안은 이상주의적 외침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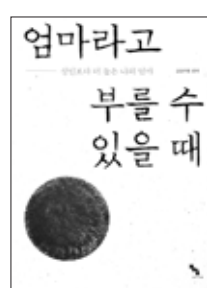
저자는 “책을 통해 불교자본주의의 환경 조성을 위한 동참자가 늘어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다.

한편, 저자 윤성식 교수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학 석·박사, 美 오하이오주립대·일리노이대·버클리대 등에서 수학했다. 美 공인회계사, 美 텍사스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정부혁신지원본부권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어머니가 곧 부처님이다

안성 도피안사 지원 스님
부모은중경 부록으로 담다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송암지연 편저
종이거울 펴냄
1만 5000원

스님들은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출가한다. 세속과의 인연을 철저히 끊으면 끊을수록 출가생활에 충실하다고도 한다. 그런 속에서 아버지는 ‘거사님’이 되고, 어머니는 ‘보살님’이 돼 버린다.

법회·저술 활동 등을 통해 유달리 효도를 강조한 송암 스님(안성 도피안사 주지)이 최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때》를 펴냈다.

저자는 “자신을 낳아 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출가한 자식에게 귀의하

는 뜻으로 큰절을 받기도 한다. 회안한 일들이 여태껏 이뤄져 왔다”고 말한다. 저자는 “도가 깊어지고 인생이 깊어지면서 은혜를 알게 된다. 그때가 되면 자연스레 가장 큰 은혜인 부모를 다시 찾는 다”며 “그제서야 거사님·보살님이 다시 아버지·어머니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저자는 “어머니에 대한 참다운 마음

이여 저자는 “어머니에 대한 참다운 마음은 열리는 그 지점을 구도의 출발지로 삼고, 그 마음으로 마침내 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을 통해 어머니와 자식 간에 서로 갖는 마음은 결국 자비심의 발로이고, 그 자비심은 종내 일체중생을 향하기 때문이며,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는 삶의 원천이라는 메시지를 절실히 느껴볼 수 있다.

저자는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때)는 도가 깊어지고 인생이 깊어짐을 뜻한다. 본래의 인간, 그 자리로 돌아오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말한다.

“어머니는 자식의 근본이고 고향이다. 현대인들은 더욱 그런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동경해한다. 삶이 고달플수록 그렇다. 하지만 정작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자식은 어머니를 모르고, 남편은 평생 함께 살아가 아내를 모른다. 남편네는 여인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잉태해 낳고 키운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그리고 묻는다.

“어인네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았 남

정도도 목숨 걸고 누군가를 위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또, 여인네는 해와 같고 달과 같은 자식을 얻기 위해 남정네를 진정으로 우러러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부모은중경도 가운데 생자망우은(해산후에 근심을 놓으신 은혜) 장

부처님과 국내의 고승 18명 어머니

이야기로 만나는 불교의 효사상

“어머니 대한 마음은 참 구도의 시작”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말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1215-중-9677호

알츠하이머 치매!

아직도 방치 하십니까?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알츠하이머성치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적 화두 치매...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리는데 저희 한의원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명지한의원

예약문의 052)261-7502~3
울산 남구 야음2동 459-44 (야음시장 맞은편)
한 의 사 원장스님 흥화 (권대일)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미·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께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여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수축을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 40년 노하우, 김철회 원장 직접 지도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회장 - 한국설법연수원회장

교육일정

- ◆ 기 간 : 매주 목요일 (2개월 과정)
- ◆ 중 합 반 : 10인 이내 - 선착순 접수
- ◆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 직접 상담 결정
- ◆ 개강일자 : 2012년 2월 16일 (목) 오후 7시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진도식 교육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韓國 說法 研修 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교명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구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